

매체 언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

최미숙**

< 차 례 >

- I. 서론
- II. 매체와 국어교육의 관계 설정
- III. ‘매체 언어’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
- IV. ‘매체 언어’ 과목의 교육 내용 범주
- V. 매체 언어 교육을 둘러싼 쟁점 및 요구
- VI. 결론

I. 서론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을 개정한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2007년 2월 28일 고시되었다. 또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 과목 교육과정도 고시되었는데,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있었던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외에 ‘매체 언어’¹⁾라는 새로운 과목이 신설되었다.

* 본 연구는 국어교육학회 제35회 학술발표대회(2006. 11. 25)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임.

**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1) 선택 과목 개발 초기의 과목명은 ‘매체와 언어 문화’였다. 그런데 국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과목명을 ‘매체 언어와 문화’로 할 것을 권유한 교육과정 심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매체 언어와 문화’로 과목명을 변경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매체 언어’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보고서(이인제 외, 2005 : 99)에 따르면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결과와 총론의 기본 입장, 그리고 2차에 걸친 연구협력위원 협의회, 교육부 심의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미래 사회의 변화와 학생과 학부모의 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 등을 심층 분석하여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제안했는데, 그 중 새로운 과목으로 매체 언어 관련 과목을 제안하였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경우 매체 언어 관련 교육 내용을 다루기는 했지만 부분적으로 다루었던 것에 비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대폭 수용하여 다루고 있다.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을 보면, 매체 언어 관련 교육 내용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경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별로 각 영역의 특성과 학습 내용을 고려하여 분산 배치하였으며, 선택 과목 교육과정의 경우 ‘매체 언어’라는 과목을 신설하여 제시하였다.

국어교육에서 매체를 다루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거의 10년을 향하고 있다. 그 동안 매체 언어 교육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매체 관련 자료집을 펴내고 결과물을 내는 등 매우 활발하게 활동한 것도 영향력이 컸으리라 생각한다.

이 연구는 ‘매체 언어’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매체 언어와 국어교육에 관한 원론적 논의보다는 교육과정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다룰 것이다.

II. 매체와 국어교육의 관계 설정

1. 매체와 매체 언어 교육

현대 사회에서 매체가 우리의 삶, 나아가 우리의 언어 생활과 불가분

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오늘날 언어 생활이 매체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매체의 발달은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고 방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의 언어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매체란 “중재하는 수단, 도구 혹은 매개체라고 하며, 이는 효과나 정보가 운반되거나 전달되는 물질 혹은 경로(D, Buckingham, 2004 : 17)”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매체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정서 그리고 다양한 정보와 지식 등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 또한 매체로 볼 수 있게 된다(오미영·정인숙, 2005).²⁾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매체라고 할 때는 이보다 제한적인 의미로 쓰인다. 생각이나 정서, 정보와 지식 등을 다수의 사람들과 더불어 공유하고 즐기고 전파하는 매개 역할을 하되,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라디오, 사진, 광고, 신문, 잡지, 그리고 인터넷처럼 다양한 종류의 현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망라하는 의미(D, Buckingham, 2004 : 17)”로 쓰인다. 이 관점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 이르면서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만들어낸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등의 매체야말로 이 시대 가장 보편적인 매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매체를 단순히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도구나 수단’의 의미로 축소해서는 곤란하다.³⁾ 서로 다른 매체를 통해 표현하는 과정은 전달과 드러냄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의미 구성 방식, 사유의 구조화 방식의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의 매체는 현대 언어 생활에서 매우 큰 비중을 갖게 되었다. 기계·전자 기술의 발달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매체 텍스트⁴⁾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대 사회는 그러한 텍스

2) 이런 의미에서 편지는 역사가 매우 오랜 미디어라고 하고 있다(오미영·정인숙, 2005).

3) 이와 유사한 논의를 임천택(2001 : 83) 역시 한 바 있다. “‘용기’로서의 매체나, ‘운반체’나 ‘유통체’로서의 매체는 국어교육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없다. 국어과는 의미 구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호’로서의 매체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부호들은 유의미한 결합을 통하여 ‘용기(容器)’나 ‘운반체’를 통하여 ‘매체 텍스트’를 구성함으로써 우리가 의미를 구성할 수 있게 해 준다.”

트를 읽고 쓸 수 있는 언어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매체는 의미를 드러내고 전달하며 나아가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이해와 표현 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언어의 측면’에서 초점화하여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초점화하기 위해 국어교육계에서는 그 동안 ‘매체 언어(김대행, 1998)’라는 용어를 통해 논의를 구체화시킨 바 있다. 매체 언어는 다양한 매체에 실현된 언어의 특성에 주목한 용어인데, 여기서 매체 언어를 매체 텍스트에 실현된 문자언어나 음성언어로 한정하여 보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매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의 매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바(K. Kanzog, 1996),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다른 기호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언어, 즉 매체 언어를 형성하게 된다. 기존의 언어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매체 언어는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 음성, 문자, 소리, 이미지, 동영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미를 형성한다는 특성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매체 언어에서는 소리와 문자가 통합되거나 혹은 문자와 이미지, 동영상 등이 통합되면서 소리, 문자, 이미지 등이 개별적으로 의미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식과는 다른 표현 방식을 지니며, 나아가 다른 표현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렇듯 매체 언어는 다양한 언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미를 형성하는 독특한 언어 체계를 지니는 것이며, 따라서 매체 텍스트 역시 의미를 생성하는 문법적인 구조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처럼 상세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4) 여기서 매체 텍스트는 “여러 다른 형식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의해 전달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된 영화 영상 작품, 이미지, 웹 사이트 등(D, Buckingham, 2004 : 17)”을 의미한다.

5) 매체 언어에 대한 이해를 위해 A. Burn & J. Leach(2004 : 153)의 견해를 참조할 수 있다. A. Burn & J. Leach는 언어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유사성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우선, ‘미시적’ 차원에서 미디어 텍스트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명확한 구조—특히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언어와 마찬가지로 미디어 리터러시는 보다 폭넓은 해석적 능력들, 혹은 일종의 비판적 리터러시의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그 의미가 사회적으로 각인되어 있으며, 사회적 맥락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국어교육에서 다루던 기존의 언어와 차이를 지니기는 하지만, “매체언어도 본질적으로 언어라는 점, 그러기에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게 마련이라는 점,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의미의 추구를 겨냥하게 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인 것(김대행, 1998 : 9)”이라 할 수 있으며, 매체 언어를 국어교육에서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긴다.

국어교육에서 매체 언어에 주목하는 것은, 현대 언어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체에 대해 언어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체가 아니라 ‘매체 언어’를 바탕으로 할 때 의미의 생산[텍스트text], 의미의 공유 및 유통[소통communication], 그리고 의미의 생산 및 수용과 유통의 바탕이 되는 사회·문화[society·culture]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기도 하다. 언어의 측면에서 초점화하여 매체에 접근함으로써 언어, 텍스트, 소통, 사회·문화의 차원을 아우르면서 다룰 수 있는 것이다.

2. ‘매체 언어’ 과목의 등장 배경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매체 언어’라는 새로운 과목이 등장한 배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우선, 앞에서 논의했듯

매체의 발달이 가져온 언어생활의 변화를 담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면서 우리의 언어생활에 일대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도 논의하였다. 디지털 매체의 발달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고방식, 문화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매체 언어는 기존의 언어 운용 방식과는 일정한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디지털 매체가 가져온 이러한 언어생활의 변화를 학교 교육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매체언어’ 과목의 등장은 이러한 사회

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국어교육에서 매체 언어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는 학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매체의 발달이 가져온 언어생활의 변화는 곧 국어교육 내용의 변화를 요구했으며, 국어교육학계에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를 이미 오래 전부터 수행하고 있었다.

사실 매체와 국어교육에 관한 초기의 논의는 매체를 교육의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이후 매체를 국어교육의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담아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졌다. 특히 국어교육에서 매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1990년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1998년 4월 한국어교육학회(구 ‘국어교육연구학회’) 학술대회에서 ‘다매체 시대의 국어교육’을 연구 주제로 삼은 것이 기폭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초기에 이루어지던 매체 활용 교육에서 벗어나 국어교육에서 매체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 등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면서 ‘매체 언어 교육’⁶⁾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매체 언어 교육 내용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기본 방향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매체를 매체 언어의 차원에서 초점화하여 수용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국어 교육 현장의 요구를 들 수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을 기다릴 여유 없이 매체 언어 교육을 당면 과제로 맞닥뜨린 곳은 바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학교 현장이었다. 그것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6) 매체 언어를 중심으로 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논의로 다음을 들 수 있다. 「매체언어 교육론 서설(김대행, 1998)」, 「매체언어의 소통원리와 교육적 대상화의 방법(김동환 · 이도영 · 염은열 · 서유경, 2000)」,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 매체언어의 교수 · 학습에 관한 연구(최병우 · 이채연 · 최지현, 2000)」, 「학교교육에서 매체 언어를 실행하는 방안(이경화, 2000)」, 「인터넷의 매체 언어성과 국어 교재화 탐색(이채연, 2001)」, 「국어교육을 위한 매체와 매체 언어 탐구(임천택, 2001)」,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범주와 수용 양상 연구(정구향, 2002)」, 「‘언어 · 텍스트 · 매체 · 문화’ 범주와 ‘복합 문식성’ 개념을 통한 미디어 교육의 국어교육적 수용에 관한 연구(정현진, 2005)」 등의 연구에서 보듯 많은 연구자들이 ‘매체 언어’라는 범주를 통해 국어교육적 수용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다.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언어생활과 사고 방식, 문화 등의 측면에서 지도의 필요성을 일찍 절감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전국국어교사모임에서는 2001년에 겨울 직무연수 주제를 ‘매체와 국어교육’으로 정하고, 매체의 이해와 매체의 국어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를 논의한 바 있다. 1998년에 결성된 전국국어교사모임 내 매체연구부에서는 10학년 국어 수업을 미디어 활용의 관점과 매체언어 수업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집필한 『고교 수업 자료집』(2003)을 펴냈고, 인물, 서사, 운율 등 기존 국어 교육에서 다루던 교육 내용을 매체와 관련지어 접근한 『국어시간에 매체 읽기』(2005)라는 대안적 형태의 교재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은 매체 언어 교육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함과 동시에 그 가능성을 실천의 형태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물이다.

넷째, 매체 언어를 자국어 교육에 포함하여 교육하는 외국의 경우도 중요한 참조가 되었다.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의 경우 그들의 모국어 교육과정에서 매체를 다루고 있으며, 매체 교육 전문가들은 대부분 모국어 교사라고 한다(A. Burn & J. Leach, 2004). 이 부분에 대해 『미디어 리터러시』의 저자인 스가야 아키코는 “미디어의 학습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본래 분석적이었던 국어의 읽고 쓰기의 범주를 미디어에 확대시킨 것(2001 : 39)”이라고 강조했다. 매체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매체 텍스트가 생산되고 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텍스트의 범주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텍스트의 양적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II. ‘매체 언어’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

이제까지 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진 매체 언어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매체 언어’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

해진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향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첫째, 국어와 교육과정이니만큼 가장 기본적인 관점으로 매체 활용 혹은 매체 교육의 차원이 아니라 ‘매체 언어의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매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국어교육의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매체 관련 내용을 전부 국어교육에서 다룰 수는 없는 일이다. 동일하게 매체를 다루면서도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미디어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대상은 유사하지만 내용 측면에서는 달라진다. 영화를 대상으로 할 때, 미디어학의 관점이라면 영화 마케팅 전략 등이 중요하겠지만 국어교육학의 관점에서는 영화 언어의 표현 방식과 이해 방식에 관심을 둘 것이다. 그리고 국어교육에서 방송 언어의 특성과 의미 구성 방식 등에 관심을 둔다면, 미디어 교육에서는 ‘방송국이 시청률을 광고주에 판매함으로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라는 것에 대한 학습을 다룰 것이다.

이런 관점에 설 때 매체 언어 교육은 매체 자체의 장르적 속성에 근거한 교육을 강조하기보다는 매체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생산하며 유통시키는가 또 어떤 수용 과정을 유도하는가 등에 대한 이해, 나아가 매체 텍스트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매체를 매체 언어의 측면으로 초점화하여 다룸으로써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국어 교육 내용으로 특화하여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매체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표현 능력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매체 텍스트의 표현을 강조하는 것은 단지 매체 텍스트의 수용자 역할만을 강조하는 교육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매체 언어 교육의 목표 논의에서 대부분 강조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했던 것은 매체 언어 교육의 목표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왜 매체를 국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있는 대부분의 논의는 매체 텍스트의 읽기 활동뿐만 아니라 표현 활동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매체 언어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매체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매체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제작 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매체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매체의 사용 능력을 바탕으로 文辯性 수준의 이해 능력을 함양하고, 그 표현의 수준 또한 창조적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매체언어의 능동적이고 비판적이며 창조적인 사용자를 기르는 것이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김대행, 1998 : 28

매체언어 교육은 매체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언어 자체가 매체이며 매체 언어가 매체적 실현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말과 글로 된 매체언어 교육은 국어교육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정구향, 2002 : 32

이를 위해서는 매체 언어 및 매체 텍스트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매체 텍스트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수용과 생산이 단지 기술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주체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 그리고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사회적 소통과 문화 창조에 참여하는 능력의 신장은 물론 매체 언어를 주체적으로 즐기고 향유하는 능력도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앞서서도 논의했듯이 매체 언어로 표현한 의미 구성물인 매체 텍스트와 매체 문화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능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매체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고 표현하는 능력 못지않게 매체 텍스트와 매체 문화를 주체적으로 향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예를 들면 사람들과 매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정서를 즐겨 주고받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매체 텍스트를 접하면서 즐기거나 탑재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매체 문화를 되돌아보면서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좀더 바람직한 매체 언어 능력

및 문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매체의 발달은 새로운 형태의 향유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해서 시 레터를 주고받으며 콘서트 형식을 통해 소설을 감상하며, 영상과 음악이 결합여진 영상시가 e-메일로 배달되고 있다. 낭송이 사라져가는 현대사회에서, 영상과 낭송과 시화의 결합이 이루어진 시 감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⁷⁾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와 삶을 되돌아보면서 의미 있는 매체 경험을 향유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은 강조해야 할 부분이다.

넷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문화의 관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수용과 생산, 그리고 향유를 강조하는 관점은 나아가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 문화를 창조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능동적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중시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매체 언어 교육은 한 개인의 언어 능력 신장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언어 문화를 창조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 이는 매체 언어 교육을 문화의 관점에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매체가 우리 사회, 그리고 대중 문화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아가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간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과 성찰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학습자를 단지 매체 수용자 혹은 사용자 차원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매체가 차지하는 위치와 맥락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과 이웃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적이고 인격적 성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논의한 방향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매체 언어 교육과의 차별성 및 선택 과목으로서의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에서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

7) 도종환 시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문학 집배원 도종환 시인이 배달하는 시를 보고 들으면서 감상할 수 있다.

도종환, “도종환의 시”, 2006. 11. 16. <<http://poem.cbart.org>>.

지는 언어 활동을 중시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을 대부분 텍스트의 이해와 표현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경우 개별 텍스트를 제시하고 그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매체 언어 활동을 강조했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반해, 선택 과목에서는 ‘매체 언어 교육으로 초점화’하고 지식, 매체 언어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성찰과 향유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 이해와 창조적 표현 능력 등을 강조함으로써 통합적인 매체 언어 능력의 신장을 지향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IV. ‘매체 언어’ 과목의 교육 내용 범주

여기에서는 ‘매체 언어’ 과목의 교육 내용을 내용 범주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매체 언어에 관해 이제까지 이루어진 논의를 참조할 때, 매체 언어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 또 매체 언어가 현대사회의 어떤 부면과 관련을 지니면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매체 언어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범주화하면, ‘매체 언어의 성격’에 대한 이해, ‘매체 언어와 사회·문화’의 관계 이해, ‘매체 언어의 수용과 생산’으로 항목화할 수 있으며, 이 범주에 대한 교육이 다양한 매체 텍스트를 자료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구조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매체 언어의 성격에 대한 이해

그 동안 국어교육에서 국어 능력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으로 제시했던 교육 내용, 즉 글을 읽고 쓰거나 말을 하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역

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등을 이해하는 학습은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 교육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매체 언어 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해야 하는지를 학습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매체 언어의 성격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체 언어 능력 신장을 위한 기초적인 교육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매체 언어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체 언어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매체 언어가 우리 생활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매체 자료(media text)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문자·소리·이미지·동영상 등의 통합이 가능한 매체 언어의 개념에 대한 이해, 생산 주체·매체 수용자 등의 특성에 따른 매체언어의 의미 작용 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매체 언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또한 매체 언어가 의미를 생성하고 가치를 규정하고 전이하는 방법을 아는 것, 나아가 매체 언어가 우리의 사회와 문화를 어떻게 재현하고 구성하는지 이해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 매체 텍스트의 유형에 따른 매체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고, 매체 텍스트의 유형에 따른 의미 생산과 수용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며, 나아가 매체 텍스트가 지니는 상호텍스트적인 특성을 이해할 필요도 있다.

2. 매체 언어와 사회·문화의 관계 이해

매체 언어의 의미 실현에 관여하는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는 매체 언어의 수용·생산 활동 그리고 향유하고 성찰하는 활동을 위해 필히 전제로 해야 할 사항이다. 매체 언어 교육은 언어에서 출발해 텍스트, 소통 그리고 사회·문화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문화의 개념은 워낙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텍스트의 의미 수용과 생산과 그리고 유통의 바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기존의 논의를 볼 때, 매체 교육과 관련하여 ‘문화’를 ‘대중 문화’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논의한 경우도 있었지만, “문화란 일종의 사회적 ‘의미 작용’이며, 그 정의는 ‘의미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관점(김대행, 1998 : 13)”에 설 때, 넓은 의미에서 대중 문화의 영역도 포괄할 수 있으며, 나아가 매체 언어의 의미 실현과 의미 작용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의 생산과 유통에서 언어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며, 여기서 나아가 매체 언어는 그것의 조작까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체 언어의 문화적 의미가 분명해진다. 매체가 문화를 창출하고 유통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적 관계의 표백인 한 이러한 문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기르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교육적 과제는 것이다(김대행, 1998 : 13~14).

A. Edgar & P. Sedgwick(2003 : 160) 역시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언어 능력—모든 형태의 기호 체계를 포괄하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을 들고 있다.⁸⁾ 이는 언어가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언어 또한 문화와의 관련 속에서 의미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매체 언어의 경우 더욱 필요한 관점이다. 매체 언어나 매체 텍스트는 사회·문화와 분리되어 그 자체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문화와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사회·문화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다.

이런 점을 전제로 하여 ‘매체 언어와 사회·문화’에서는 정보 사회, 대중 문화, 인간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하여 ‘매체 언어와 정보 사회’, ‘매체 언어와 대중 문화’, ‘매체 언어와 인간 관계’라는 항목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8) A. Edgar & P. Sedgwick(2003 : 160)은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문화의 두 요소는 아마도 인간의 건설·건축 능력과 (모든 형태의 기호 체계를 포괄하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언어 능력일 것이라고 논의하고 있다.

‘매체 언어와 정보 사회’와 관련해서는 매체에 따른 정보 활용의 특성과 방식을 아는 능력, 기술 발달에 따른 매체의 변화가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구성하고 유통시키는지 이해하는 능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체 언어와 대중 문화’와 관련해서는 매체 언어가 형성하는 대중 문화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이해는 물론 대중 문화가 수용자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중 문화가 형성하는 세계와 현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능력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대중문화에 무비판적으로 젖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나’에게 향유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매체 텍스트의 어떤 점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지 등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바람직한 대중 문화를 즐기면서도 이끌어가는 창조적 주체로서의 능력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자는 것이다.

‘매체 언어와 인간 관계’에서는 인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 언어의 작용을 이해하고, 매체 언어 활동에서 매체 언어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교육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통해 형성되는 인간 관계가 매체의 변화에 따라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가, 그리고 바람직한 인간 관계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3. 비판적 수용과 창조적 생산

앞에서 논의했듯 ‘매체 언어’ 과목에서 필히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으로 ‘수용과 생산’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매체 텍스트 수용·생산 활동에 관여하는 사고나 활동 방법을 교육 내용으로 하자는 것이다. 매체 텍스트의 수용 측면에서는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하는 능력을, 생산 측면에서는 창의적으로 변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그리고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소통과 문화 참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과 심미적 향유’, ‘매체 자료의 창의적 변용과 생산’, ‘매체 언어를 통한 사회적 소통과 문화 참여’ 항목을 선정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과 심미적 향유’에서는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 매체 자료의 수용 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관점이나 가치 등을 분석하면서 수용하고 향유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심미적 매체 자료의 창의적인 표현 방식과 심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감상하며 즐기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

‘매체 자료의 창의적 변용과 생산’에서는 동일 내용을 다른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하되, 언어와 기호의 표현이 달라지는 방식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기존 매체 자료를 창의적으로 변용하여 생산하는 능력, 목적·수용자·문화적 맥락·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 자료를 생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매체 언어를 통한 사회적 소통과 문화 참여’는 사적이고 공적인 언어 생활에서 적절한 매체 언어를 활용하여 소통하는 능력과 사회적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창의적인 언어 문화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매체 언어를 활용하는 주체적인 개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매체 언어 교육을 위한 자료 유형

기존의 매체 하위 분류 방식을 보면 일반적으로 매체의 유형이나 매체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것은 매체의 발달 자체가 어떤 체계성을 띠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전의 매체가 지녔던 기능을 포함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진화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매체 텍스트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체 언어 교육의 국어교육적 실천의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능한 분류 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 1> 장르별 분류

- 뉴스와 칼럼 :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 이야기, 드라마, 영화 : 소설, 만화, 라디오 드라마,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유머
- 광고 :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 만화 : 책, 신문,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인터넷 카툰)
- 기획물(다큐멘터리, 특집) :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유형 2> 매체의 유형에 따른 분류

- 인쇄 매체(신문, 잡지 등)
 - 보도 기사, 시사 만화, 광고 등
- 방송 매체(라디오, 텔레비전 등)
 - 뉴스, 시사 보도, 드라마 등
- 영상매체(사진, 영화, 컴퓨터 게임 등)
- 인터넷 매체(인터넷 신문, 인터넷 문학, 게시판, 커뮤니티, 개인 홈페이지 등)

<유형 3> 언어 활동의 목적에 따른 분류(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 정보 전달과 설득 : 뉴스, 칼럼, 광고와 사진, 기획물(다큐멘터리, 특집) 등
- 심미적 정서 표현 : 영상물, 대중 가요, 사이버 문학, 만화, 오락물 등
- 사회적 상호 작용 : 온라인 대화 등

<유형 1>은 장르 중심 분류 방식으로, 개별 장르를 우선 제시하고 뒤이어 그 장르를 실현할 수 있는 매체의 종류를 모두 제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분류 방식을 활용하면 각 장르가 매체를 달리함으로써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 이해하는 방식 등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주목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매체 차이에 따른 의미 실현 방식을 중시하여 다룰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르별 분류는 다소 무체계적으로 나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유형 2>는 가장 일반적인 분류 방식으로 이런 분류 방식을 활용하면, 매체 자체가 각각 지니는 고유의 미학, 속성, 관습 등을 일차적으로 중시하면서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동일한 기준으

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매체의 경우, 기존의 여러 매체에서 담당했던 역할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신문 기사, 뉴스, 드라마, 게임, 영화 등 앞에서 제시했던 매체에서 담을 수 있었던 것을 거의 대부분 다룰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분류 체계에 상당한 난점을 지니게 된다.

기존의 매체 논의, 매체 언어 관련 논의를 참조할 때, 일반적으로 <유형 1>과 <유형 2>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유형 1>과 <유형 2>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은 이런 방식을 활용할 경우, 신문, 광고, 만화, 기획물 등의 특성 자체, 그리고 매체별 특성 자체에 대한 이해를 강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며, 자칫 국어교육 차원에서 매체 언어를 다루어야 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운용될 소지도 있다는 점이다.

매체 언어 교육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유형 3>에 주목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형 3>은 언어 활동의 목적에 따른 분류 방식으로, 이는 우선 언어 활동의 목적을 고려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로 매체 텍스트의 종류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어떤 언어 활동 목적을 위해 주로 어떤 텍스트를 활용하는지를 바탕으로 접근함으로써 국어교육의 관점을 고려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언어 활동의 목적을 설정하면서 ‘정보 전달과 설득’을 하나로 묶은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경우, 언어 활동의 목적을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정서 표현’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틀의 기본적인 특성을 참조하되, 선택 과목에서는 ‘정보 전달’과 ‘설득’을 묶어 ‘정보 전달과 설득’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매체 언어의 경우 심미적인 특성을 지닌 텍스트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미적 정서 표현’이라는 목적 또한 설정할 필요도 있다. 여기서 ‘정보 전달과 설득’의 경우,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단순히 정보만을 전달하는 경우보다는 특정 형태의 설득을 전제로 한 것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정보 전달만을 위한, 그리고 설득만을 위한 텍스트도 가능하다. 다만 설득을 전제로 한 정보 전달, 정보 전달 방식에 의

해 설득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또한 배려하기 위해, 특히 매체 텍스트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좀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로 묶어서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V. 매체 언어 교육을 둘러싼 쟁점 및 요구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매체 언어 관련 내용이 본격적으로 제시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사회와 학교 현장에서도 기대 반 우려 반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 및 요구 중 몇 가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매체 관련 내용을 국어교육에서 다룰 경우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할 것인가가 쟁점 사항 중 하나였다. 과연 매체 관련 내용을 국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논자에 따라서는 ‘어색한 동거’ 상태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표명하기도 하였지만 매체를 전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측면에서 초점화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 10여 년 간의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매체 언어 교육 내용을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에서 각 영역의 특성에 맞게 매체 언어 관련 내용을 다루자는 안, ‘보기(viewing)’ 혹은 ‘보여주기’ 영역 등 독자적인 영역으로 설정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상의 하위 영역으로 신설하여 제시하자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이인제 외, 2005, 141). 이것은 기존의 언어에 대한 매체 언어의 성격, 즉 언어로서의 보편성에 초점을 두느냐 혹은 보편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매체 언어가 지니는 독자성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의견이 나누어지는 부분이다.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경우, 6영역 내에서 각 영역의 교육 내용과 통합적으로 매체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선택 과목 교육과정에서는 매

체 언어를 초점화하여 독자적인 과목으로 설정하여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제시된 매체 관련 교육 내용을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각각 언어 활동의 보편성과 독자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여 구조화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매체 언어의 표현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들 수 있다. 매체 언어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능력, 생산하는 능력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은 매체 언어 교육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논자가 강조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학생들은 이미 교사보다 더 능숙하게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를 다루거나 더 자주 영화를 보며 MP3로 음악을 듣는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 블러그에 자신의 일상을 글로 쓰면서 음악과 영상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체 텍스트 생산 교육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 교육과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서 그 실행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는 견해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매체 언어가 복합적인 언어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매체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술 습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매체 텍스트 생산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우려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매체 텍스트의 이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거나 생산하는 활동은 매체 언어의 특성을 실제 경험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매체 언어 및 매체 텍스트의 의미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힘과 관련 있는 복잡한 관계와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매체 언어 교육이 전문적인 제작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만큼 매체 텍스트의 생산은 결과물 자체 혹은 기술적 완성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발달 수준을 고려할 때에도 최신의 기술을 익히거나 중시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지나친 강박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매체언어 교육이 국어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언어 활동의 목표를 중

심으로 하여 지도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매체 텍스트를 생산할 때에도 완성도 높은 결과물의 생산이나 높은 기술 수준이나 복잡한 기술의 활용도 등을 중시하기보다는 단순하고 기초적이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표현 방법이나 표현을 위한 아이디어 생산 등에 초점을 두어 지도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셋째, 매체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는 매체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강조하기보다는 공감과 수용의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상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대중 문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 때문에 매체에 대한 역기능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텔레비전은 바보 상자’라는 표현이 압축하듯 매체는 학생들의 생활에서 분리시켜야 할 부정적인 것이라는 관점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생활과 분리하기 어려운 다양한 매체들, 예를 들면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의 등장으로 인해 매체는 우리의 일상적 삶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나아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매체를 적극적인 관점에서 교육에 도입하려는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다. 매체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는 견해는 이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성찰적인 태도를 경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둘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 이기는 하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 초점을 두는 교육을 강조하기보다는 매체 언어에 대한 ‘성찰적 관점’을 중시하는 교육을 강조할 경우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매체 텍스트의 유형 분류 방법에 대한 모호함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자료 유형 중 영상물, 오락물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송여주, 2006). 실제 매체 텍스트를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니와 이는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 기존의 매체를 활용하거나 통합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어교

육의 관점을 중시한다면, 텍스트의 유형 분류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언어 활동의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매체 및 매체 텍스트를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 분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과 활용 방식에 따라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견해로 문자 메시지까지 자료로 넣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문자 메시지를 넣어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언어 활동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자료로 다룰 수 있는 것이지 대표적인 예로 꼭 넣어야 하느냐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모든 매체 텍스트를 다 포괄하는 방식보다는 언어 목적별로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유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즐기는 뮤직 비디오를 자료 유형에 넣어야 한다는 견해, 라디오나 TV, 영화, 신문, 잡지 등은 모두 인터넷 매체 하나로 통합되는 경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역시 매체 자체에 따른 분류보다는 국어교육의 특성에 맞게 언어 활동의 목적에 따른 분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관점을 갖는 데 도움을 주었다.

VI. 결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은 국어 교육에 관련 있는 모든 주체들의 논의 과정을 거친다. 국어교육 연구자,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은 물론, 학부모,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매체 언어’ 교육과정의 개발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서 ‘매체 언어’ 과목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되, 무엇을 초점으로 하여 개발해야 하며,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하였다.

매체 언어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매체 활용의 차원이 아니라 매체 언어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매체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표현 능력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매체 언어로 표현한 의미 구성물인 매체 텍스트와 매체 문화를 향유하고 성찰하는 능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문화의 관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매체가 우리 사회, 그리고 대중 문화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아가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간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과 성찰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바탕으로 매체 언어 교육의 내용 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부 항목으로 ‘매체 언어의 성격’에 대한 이해, ‘매체 언어와 사회·문화’의 관계 이해, ‘매체 언어의 비판적 수용과 창조적 생산’, ‘매체 언어 교육을 위한 자료 유형’을 들 수 있다. 자료 유형의 경우에는 ‘언어 활동 목적에 따른 분류’ 방식을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정보 전달과 설득’, ‘심미적 정서표현’,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형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 본 논문은 2007. 2. 17. 투고되었으며, 2007. 3. 11. 심사가 시작되어 2007. 3. 28.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권순희(2003),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읽기 교육 개념의 재설정」, 『국어교육학연구』 제16집, 국어교육학회.
- 김대행(1998), 「매체언어교육론 서설」, 『국어교육』 제97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pp.7~44.
- 김대행 외(2004), 『방송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서울대출판부.
- 김도남(2004), 「미디어 문식성에 대한 국어교육적 논의 배경」, 『청람어문학』 28집, 청람어문교육학회.
- 김도남(2004), 「미디어 문식성 교육 내용 탐색」, 『한국어문교육』, 제13집.
- 김동환(2002), 「문화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제15집, 국어교육학회.
- 김동환 · 이도영 · 염은열 · 서유경(2000), 「매체언어의 소통원리와 교육적 대상화의 방법」, 2000년 학술 발표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병선(1998), 「하이퍼미디어 시대의 언어 교육」, 한국국어교육 연구회 학술발표대회 발표 자료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김정자(2002), 「국어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의 수용」, 『국어교육학연구』 제15집, 국어교육학회.
- 김창원(2002), 「국어 교육과 문화론」, 『한국초등국어교육』 제20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노은희(2002), 「대중문화의 국어교육적 의의」, 『국어교육학연구』 제15집, 국어교육학회.
- 류수열(2003), 「문학교육의 외연과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의 가능성」, 『국어교육학연구』 제17집, 국어교육학회.
- 민현식(2005), 「매체 변화 시대의 국어 정책 및 교육의 방향」, 『새국어생활』 제15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 박수자(2000), 「의사소통 매체와 언어 표현의 특징」, 『국어교육학연구』 제10집, 국어교육학연구, pp.319~343.
- 박인기(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제15집, 국어교육학회, pp.23~54.
- 박인기 외(2005), 『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 삼지원.
- 송여주(2006), 「국어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안을 검토하고 : 매체언어와 문화」,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안 토론회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 안정임 · 전경란(1999), 『미디어 교육의 이해』, 한나래.

오미영·정인숙(2005),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우한용 외(2004), 『신문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서울대출판부.

이경화(2000), 「학교 교육으로 매체 언어를 실행하는 방안」, 『한국어문교육』 9권 1호.

이인제 외(2005),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국국어교사모임 매체연구부(2005), 『국어시간에 매체읽기』, 나라말.

전국국어교사모임 매체연구부(2005), 『매체 교육의 길 찾기』, 나라말.

정구향(2002),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 범주와 수용 양상 연구」, 『새국어교육』 63집, 한국국어교육학회.

정현선(2005), 「‘언어·텍스트·매체·문화’ 범주와 ‘복합 문식성’ 개념을 통한 미디어 교육의 국어교육적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제28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최병우·이채연·최지현(2000),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매체언어의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최영환(1998), 매체 변화에 대응하는 국어교육, 『국어교육』 98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최인자(2002), 다중문식성과 언어문화 교육, 『국어교육』 109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최홍원(2005), 「매체 개념과 국어교육의 가능성 연구」, 『신청어문』 제33집,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6), 「국어과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정시안」.

스가야 아키코(2001), 『미디어 리터러시』, 안해룡·안미라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Buckingham, D.(2004), 『미디어 교육』, 기선정·김아미 역, Jnbook.

Burn, A., & Leach, J.(2004), “ICT and moving image literacy in English”, *The Impact of ICT on Literacy Education*, ed. R. Andrews,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Falmer.

Edgar, A., & Sedgwick. P.(2003), 『문화 이론 사전』, 박명진 외 역, 한나래.

Kanzog, K.(1996), 「매체와 문학」, 『현대 문학의 근본 개념 사전』, 백종유 역, 솔.

<초록>

매체 언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최미숙

이 논문은 2007년 2월에 개정 고시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신설된 ‘매체 언어’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한 연구다. 무엇을 초점으로 하여 ‘매체 언어’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며,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하였다.

매체 언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매체 활용에 머물지 말고 매체 언어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매체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표현 능력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매체 언어로 표현한 의미 구성물인 매체 텍스트와 매체 문화를 향유하고 성찰하는 능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매체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문화의 관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매체 언어가 우리 사회, 그리고 대중 문화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아가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간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과 성찰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바탕으로 매체 언어 교육의 내용 범주로 ‘매체 언어의 성격’, ‘매체 언어와 사회·문화’, ‘매체 언어의 수용과 생산’, ‘매체 언어 교육을 위한 자료 유형’을 제시하고 내용 범주별로 어떤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핵심어】 매체, 매체 언어, 매체 텍스트, 선택 과목, 교육과정, 사회·문화

<Abstract>

The Direction of Curriculum Development for Media language education

—focus on the Elective Subjects—

Choi, Mee-sook

This thesis discusses the direction of curriculum development for 'media language' subject. Developing the curriculum for 'media language' subject, we need to consider the followings.

First, media language education must not aim at education for use of media but for 'media language'

Second, it is necessary that we emphasize not only the critical reading of media text. but also the expression of media text.

Third, it is important that we have ability to enjoy and reflect media text.

And Fourth, it is important to grasp relation between the media language and society · culture.

And this thesis discusses four-terms as categories of contents for media language education. : 'quality of media language' 'media language and society · culture' 'reception and production of media language' 'text types for media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media, media language, media text, elective subjects, curriculum, society · culture

【토론문】

<선택과목으로서의 ‘매체언어와 문화’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한
토론문

이은희(한성대학교)

현재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한 새로운 교육과정 시안이 개발되어 검토, 수정 중이다. 국어과의 경우 개정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사항의 하나는 매체 관련 교육의 강화로 볼 수 있다.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도 각 영역별로 매체 언어 관련 교육 내용이 대폭 수용되었으며 특히 선택 과목으로 ‘매체언어와 문화’ 과목이 신설될 계획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국어교육계에서 매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점차 매체 언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국어교육에서 이러한 매체 언어 교육의 강화는 시의성을 지니고 있다.

발표자는 신설 과목인 ‘매체언어와 문화’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관해서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초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매체 관련 교육에 대한 관심에 비해 일관된 논의의 방향 정립이나 연구 결과의 축적이 부족한 학계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교육과정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려 할 때 연구자가 부딪치는 어려움의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체와 국어교육의 관계에서부터 ‘매체언어와 문화’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 목표 및 내용 범주, ‘매체언어 교육’을 둘러싼 요구들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개발의 출발점에서부터 앞으로의 고려 사항까지 ‘매체언어와 문화’ 교육과정의 전체상을 심도 있게 정리하고 교육과정 개발의 틀을 제시해 준 발표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토론을 위해 발표문을 읽으면서 그 동안 여러 연구자들이 매체 언어에 대해 생각하면서 고민해 왔던 다양한 주제들이 발표자의 논의 속에 녹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새삼 매체 언어에 대한 접근의 다양성과 앞으로 국어교육학계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교육과정 개발이란 하나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관점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면서 교육의 전체상을 규정해 나가는 것이기에 앞으로 ‘매체언어와 문화’ 과목이 국어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학계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발표문 자체에 대한 질의의 차원이자기보다는 지금까지 국어교육 연구자로서 매체 언어에 대해 느껴왔던 의문점들을 이 토론의 자리를 빌려 제기해 보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임무를 다하려고 한다.

먼저 ‘매체언어와 문화’ 과목의 성격에 관해 질문을 던지고 싶다. 지금까지 국어교육에서 매체를 접근할 때에는 도구적 접근과 매체 언어 자체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어 왔는데, ‘매체언어와 문화’ 과목에서는 이 중 도구적 접근에서 벗어나 매체 언어 자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어교육에서 매체를 다루면서 언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할 수 있도록 논의의 방향을 정리했다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매체언어와 문화’ 과목의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으로 네 가지를 설정했는데, 이 중 문화와 관련된 항목들인 ‘매체 언어의 표현물인 매체 텍스트와 매체 문화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능력을 강조해야할 필요가 있다.’와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문화의 관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가 국어교육의 틀 안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해 보고 싶다. 매체에 관련해서는 국어교육적 접근뿐만 아니라 매체 교육적 접근도 가능한데 이들 두 접근 방식의 고유한 영역이 무엇이며,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며 할 것인지가 본 토론자에게는 항상 의문이었다. 그런데 이 발표문에서처럼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국어교육의 틀 안에서 매체를 볼 때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자리 잡는다면, 매체에 대한 국어교육적 접근과 매체 교육적 접근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다음으로 매체 언어 교육의 내용 범주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발표자는 매체 언어 교육의 내용 범주를 ‘지식’, ‘수용과 생산’, ‘사회·문화적 맥락’의 세 가지로 들었는데 국어교육의 틀 안에서 매체 언어를 볼 때 과연 ‘사회·문화적 맥락’이 ‘지식’이나 ‘수용과 생산’이라는 측면과 대등한 차원에서 설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리고 이렇게 삼분법적으로 내용 범주를 나누어 볼 때 ‘지식’을 지나치게 한정된 의미로 보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이 ‘지식’이나 ‘수용과 생산’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매체 언어 교육을 위한 자료 분류 방식에 대해 느꼈던 궁금함을 말해 보고자 한다. 매체 언어 교육을 위한 자료 분류 방식들 중에서 이 발표문에서는 언어 활동의 목적에 따른 분류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러한 분류 방식은 지금까지 매체 언어를 다루던 방식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국어교육의 전체적 틀 안에서 매체 언어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언어 활동의 목적에 따른 분류 방식으로 ‘정보 전달과 설득’, ‘심미적 정서 표현’, ‘사회적 상호 작용’의 세 유형을 들었는데, 과연 ‘사회적 상호 작용’을 ‘정보 전달과 설득’이나 ‘심미적 언어 표현’과 병치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적 상호 작용’은 언어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다른 언어 활동과 대등한 위상을 지닌, 언어 활동의 하위 분류 중의 하나로 보기에 너무 큰 범주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현대 사회에서 매체, 특히 대중 매체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국어교육의 틀 안에 매체 언어가 중요한 부분으로 수용된 상황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매체 언어를 국어교육의 한 부분으로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인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이다. 어쩌면 여기서 제기한 의문의 해답은 발표자의 몫이 아닌 국어교육계 모두의 몫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도입된 과목에 대해서, 그것도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맡아서 척박한 연구 환경 속에서 훌륭한 결과물을 보여준 발표자에게 국어교육계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표한다.